

## 접몽

2022.09.10

### #1/숲/낮

은은하게 울려퍼지고 있는 새의 울음소리를 누워서 듣고 있는 재호와 지현. 누워있는 재호의 시점으로 보이는 광활한 숲의 모습 재호가 옆을 돌아보자 자신의 손을 잡고 누워있는 지현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진다. 그때, 흐릿하게 보이던 지현이 일어나 어딘가로 떠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재호는 어리둥절해하며 지현을 쫓아간다.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지현. 재호는 지현을 부르며 계속해서 숲을 돌아다닌다.

CUT TO

갑작스레 눈을 확 뜨는 재호. 흔들리는 재호의 동공이 보여진다.

Title In: 접몽

### #2/거실/아침

방 한구석에 앉아서 웅크려 울고 있는 재호. 이때, 재호의 휴대전화로 동균의 전화가 온다. 눈물을 닦고 동균의 전화를 받는 재호.

재호

여보세요?

동균

응, 오늘은 좀 어떤가 싶어서

재호

(짜증 섞인 목소리로)이제 전화 안 해도 된다고

동균

알겠어, 그냥 걱정돼서 한번 해본거야...

망설이다가 동균에게 말하는 재호.

재호

....오늘 개 나오는 꿈 꿔

동균

꿈?

재호

응....거기서 개랑 노는 꿈

동균

(한숨 쉬며)그래서?

재호

그래서 막 놀다가 나 안 보고싶었냐고  
물어보려했는데 갑자기 막 가버리더라고

동균

(망설이다가)재호야...이제 그만 잊고 네 삶 살아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그러고만 있을거야?

잠깐의 정적, 재호가 다시 말을 꺼낸다.

재호

.....됐어, 끊어

동균

아니, 재호야

재호

앞으로 전화하지마

동균

재호야, 걱정돼서 그래

끊지 말아봐 재호야, 재호야!

바로 전화를 끊고 다시 고개를 푹 숙이는 재호.

#3/재호의 방/아침

서랍을 열고 뒤적거리다 약통을 하나 꺼내드는 재호. 수면제를 한 알 꺼내 입에 넣고 물을 마신다. 그리고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재호.

CUT TO

뒤척이고 있는 재호. 왼쪽으로 몸을 돌아누워 가만히 있다. 이내 천천히 감기는 재호의 눈.

#4/숲/낮

숲에 멍하니 서있는 재호. 지현이 먼 곳에 흐릿하게 보인다. 지현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는 재호. 계속해서 지현을 향해 걸어가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흐릿하게만 지현이 보인다. 눈을 비비며 다시 지현에게 가려고 하지만 좁혀지지 않는 거리.

#5/재호의 방/낮

다시 잠에서 깨는 재호. 무거운 한숨을 내쉰다.

CUT TO

눈물자국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는 재호. 검색창에는 '죽은 사람이 나오는 꿈'이라고 적혀져 있다. 스크롤을 내리며 정보를 찾는 재호. 그러다 다시 검색창에 들어가 '자각몽 꾸는 법'을 검색한다. 정보를 찾다가 꿈 일기를 쓰라는 얘기를 발견하는 재호.

CUT TO

노트를 펴고 펜으로 지현과의 꿈에 대한 내용을 적기 시작하는 재호. 펜으로 일기를 쓰다가 잠시 꿈을 떠올리다 다시 쓰기를 반복한다.

(Insert:

손을 잡고 숲을 걷고 있는 재호, 지현.

CUT TO

바닥에 누워 숲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재호, 지현. 이내 재호는 지현을 바라보지만 지현은 흐릿하게만 보인다.

CUT TO

재호의 손을 놓고 떠나는 지현의 흐릿한 뒷모습, 재호는 뒤따라가지만 지현은 보이지 않는다.)

일기를 다 쓴 재호. 잠시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쉰다.

#6/창고/낮

창고에 들어가 지현의 물품들을 꺼내보는 재호. 지현의 쓰던 옷들을 꼭 안아보는 재호. 옷의 향기도 맡아본다. 지현이 찻던 시계, 바지 등등을 모두 꺼내보는 재호. 옷들을 꺼내보니 창고 구석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다. 그것을 열어 지현과 찍었던 사진들을 보는 재호. 지현의 선명한 얼굴을 사진을 통해 다시금 보는 재호. 상자 속에는 꿈속에서 지현이 차고 있던 은색 팔찌도 함께 담겨있다. 그 팔찌를 멍하니 바라보는 재호.

그때, 휴대전화로 동균의 전화가 오지만 무시하고 끊어버린다. 계속 전화가 오자 휴대전화를 꺼버리는 재호. 다시 상자에 담긴 물건들을 보는 재호. 이때, 상자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카메라 하나를 발견한다.

#### #7/거실/오후

소파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카메라에 찍힌 지현과 함께 숲을 걷는 영상들을 보고 있는 재호. 눈에는 눈물이 약간 고여있다. 영상을 보다가 카메라를 끄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본다.

#### #8/재호의 방/오후

방문을 짝 닫고 커튼을 치는 재호. 방바닥에는 지현과의 사진, 지현이 입었던 옷,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 그것들을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꿈 일기를 베개 밑에 넣어놓고 서랍에 있던 수면제를 다시 꺼내든다. 수면제 한 알을 꺼냈다가 잠시 고민하다 한 알을 더 꺼내는 재호. 다시 고민하다가 몇 알을 더 꺼내다가 결국 한 움큼 약을 꺼내 입 속에 넣어버리는 재호.

#### CUT TO

불을 끄고 침대에 눕는 재호.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주먹을 짝 쥐는 재호.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천천히 감긴다.

#### #9/숲/낮

숲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재호. 이내 눈을 뜬다. 힘겹게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는 재호. 꿈 속에 나왔던 숲 그대로이다. 재호는 자각몽에 성공했음을 직감하고 카메라에 담긴 지현과 숲을 걷는 영상을 머리 속으로 떠올리며 그 영상에서 걷던 길을 따라간다.

(Insert: 함께 숲 길을 걷고 있는 재호, 지현)

길을 걷다가 익숙한 향기에 주위를 둘러보는 재호.

(Insert: 지현의 옷 냄새를 맡고 있는 재호)

지현의 옷 냄새가 나는 쪽으로 길을 걸어가는 재호. 계속해서 걷다가 나무 뒤로 스쳐가는 옷자락을 발견한다. 그 쪽으로 계속해서 따라가는 재호. 다시 한번 익숙한 모습의 옷을 입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발견한다.

(Insert: 바닥에 널브러진 지현의 옷들)

그 사람이 지현임을 알고 그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재호. 지현이 점점 멀어지자 재호는 더 빨리 뛰기 시작한다.

#10/언덕/낮

고개를 숙인 채 숨을 헐떡이며 언덕으로 올라오는 재호. 고개를 다시 들어 주변을 둘러보며 지현을 찾는다. 어디에도 지현이 보이지 않자 지쳐 주저앉는 재호. 주저앉은 재호의 뒤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인다. 뒤에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천천히 뒤를 돌며 일어나는 재호. 사진에서 봤던 얼굴 그대로 재호를 바라보고 서있는 지현.

(Insert: 재호 손에 들린 재호와 지현이 함께 찍은 사진)

점점 붉어지는 재호의 눈시울.

#11/재호의 집 현관/저녁

재호 집 초인종을 누르는 동균. 하지만 답이 없자 문을 두드린다. 그러다 재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재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다. 한숨을 쉬며 턱을 매만지며 초조해하는 동균.

CUT TO

서있는 지현을 보고 미소 지으며 지현에게 다가가는 재호.

CUT TO

동균은 도어락 번호를 막 눌러보지만 전부 틀린다.

CUT TO

지현을 끌어안는 재호.

CUT TO

고민하다가 캘린더 앱을 열고 지현의 생일을 찾는 동균. 그걸 보고 도어락에 지현의 생일 0403을 친다.

#12/숲/낮

손을 잡고 숲 바닥에 누워있는 재호, 지현. 재호는 고개를 돌려 지현의 선명한 얼굴을 바라보다 질문을 한다.

재호

근데 너 나 안 보고싶었어?

CUT TO

재호 집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동균. 그는 굳게 닫혀있는 재호의 방문을 연다.

CUT TO

재호의 질문을 듣고 재호를 쳐다보는 지현. 재호도 지현을 말없이 쳐다본다. 무언가 대답을 하는 지현. 재호는 그 말을 멍하니 듣고 있다.

CUT TO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동균. 재호는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깬다.

동균

야?, 너 괜찮아??

고개를 끄덕이는 재호. 동균은 재호의 등을 토닥여준다.

#13/거실/저녁

몸을 이불로 감싸고 소파에 앉아있는 재호. 동균은 재호에게 차를 가져다준다. 동균은 재호 옆에 앉아 그에게 물어본다.

동균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거야?

아무 말이 없는 재호. 동균은 한숨을 쉬고 재호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Insert: 보고싶지않았냐고 질문하는 재호. 지현은 망설이다가 무언가 대답을 하려고 있다)



계속 멍하니 그때만을 떠올리고 있는 재호.

(Insert: 아무도 없는 숲의 모습, 언덕 중앙에 가만히 서있는 지현의 모습이 보여진다)